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8. 1.(화) 14:00 배포 2023. 8. 1.(화)

갈륨 등 주요 수입의존 품목 공급망 점검

- 산업부, 「산업공급망 점검 회의」 열어 -
-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기업애로 접수 및 지원 -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8월 1일(화) 14시,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「산업공급망 점검 회의」를 개최하고, 갈륨, 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였다. 회의에는 반도체 협회, 디스플레이 협회,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회와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망센터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등), 희소금속센터(생산기술연구원),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.

중국 정부가 8월 1일(화)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갈륨, 게르마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수요와 공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, 수요와 공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. 또한, 갈륨·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망센터-희소금속센터-광해광업공단이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하고, 국제(글로벌) 수요와 공급 동향 등 정보 공유, 비축 수요조사 및 조달, 재자원화 및 대체·감축 기술 발굴·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.

한편,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*는 7월 3일(월) 중국의 수출통제 발표 이후 국내 주요 갈륨·게르마늄 수입/수요기업 약 400개사에 대해 수요와 공급 동향을 조사한 바 있다. 관련 기업들은 단기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, 가격 상승, 통관 애로 등 우려와 함께 대체 수입처 발굴 필요성도 제기하였다.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8월 1일(화)부터 이번 수출통제에 따른 갈륨·게르마늄의 수요와 공급 동향을 점검(모니터링)하고 수요와 공급 애로 발생 시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등 관계기관, 현지공관 등과 연계하는 등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통합(원스탑) 지원창구로 운영된다.

* 정부 부처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등 공공기관, 정책금융기관, 업종별 협·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직

(연락처 : ☎1670-7072, ask16707072@korea.kr)

앞으로도 산업부는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산업정책관실 산업공급망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종주 (044-203-4910)
		담당자	사무관	황채은 (044-203-4913)
	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	책임자	과 장	주원석 (044-203-5690)
		담당자	사무관	김아림 (044-203-5695)
	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	책임자	팀 장	정대환 (044-203-5259)
		담당자	주무관	이승준 (044-203-526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